

보도시점 2026. 3. 27.(금) 10:00 배포 2026. 3. 26.(목)

온실가스 줄이고 생태계 살린다... 경안천 등에 2030년까지 26만 그루 심기 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삼성전자, 탄소흡수원 확충 위한 나무심기 행사 개최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무렵에 맞춰 민간참여 생태계 복원 본격화

정부와 기업이 경기도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 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하며, 온실가스 저감과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7일 오전 경안천 일원(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26년 3월 19일 시행) 개정 무렵에 맞춰 진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은 기업(민간)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디에스(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박은식 산림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 이후 2030년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민관 협력 식재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이는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 1인당 2그루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경안천 수역인 용인시 운학동과 호동 일원(약 40만㎡)을 대상으로 수변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목 식재뿐만 아니라 습지 물길 정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나무심기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민간의 자연환경 복원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곽정규 (044-201-7232)



□ **배경**

-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 및 훼손된 생태계 30% 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참여 나무심기 추진 *30년까지 보호지역 30% 훼손생태계 30% 복원 목표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 참여 활성화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6.3.19)에 따른 민간의 나무심기 참여 확산 유도

□ **주요내용**

- (일시·장소) '26.3.27.(금) 10:00, 경기 용인시 호동 (경안천 주변)
- (참석자) 기후부(장관), 산림청(청장), 삼성전자(사장), 한강청장, 환경보전원장 등 120여명
- (내용) 훼손지 복원 위한 민간기업 나무심기 확산, 삼성전자 나무심기 캠페인 등

□ **세부계획(안)**

<사회: 김연진 아나운서>

시간	내 용	비고
10:00~10:10	10' · 차담회 (장관, 산림청장, 삼성전자사장, 보전원장 등)	* 몽골 텐트
10:10~10:15	5' · 행사장 입장	* 야외 행사장
10:15~10:20	5' · 개회 및 내빈 소개	
10:20~10:25	5' · 인사말	장관
10:25~10:30	5' · 축사 1	산림청장
10:30~10:35	5' · 축사 2	삼성전자 사장
10:35~10:45	10' · 삼성전자 "Green Step 2030" 캠페인	
10:45~10:55	10' · 기념식수	수종 : 느티나무*
10:55~11:10	15' · 식재 대상지 기관 격려 등	
11:10	· 종료	